

주거·의료·돌봄까지... 노인 통합돌봄 첫발

서귀포시, 어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식
민관 연계 병원·시설 아닌 평소 살던 집서 맞춤 서비스

서귀포시가 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평소 살던 곳에서 주거·의료·요양 돌봄을 맞춤형으로 통합지원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첫 발을 뒀다. 시가 지난 5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서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면서 2021년까지 2년간 추진될 사업에는 총 42억6000만원이 투입돼 노인 931명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17일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 양윤경 서귀포시장,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고현수·한형진 제주도의원, 이상기 제주도한의사회 회장, 공선희 제주고령사회연구소 연구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다. 출범식에서 보건복지부는 서귀포시에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등판을 전수했다.

이 사업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통합돌봄의 조기 구축 필요성 대두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평소 살던 곳에 기반을 둔 돌봄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다. 노화, 사고, 질환, 장애 등으로 요양(종합·재활) 병원 장기입원자 중 집으로 퇴원을 희망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의 안심 주거환경 개선에서부터 안심복아 지원, 방문 한의진료 지원, 이동·목욕지원 돌봄 등 민관이 연계해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병원·시설에서 재가로의 복귀·정착을 돕고, 장기요양 등급외자나 사각지대에 있는 만성질환 노인 돌봄을 통해 사회적 입원을 예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서귀포시는 17일 문화강좌실에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면서 추진하는 선도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이날 양윤경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어르신 돌봄 문제는 우리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다.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사회의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해 명품 돌봄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격려사에서 "살던 집에서 노후생활을 원하는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말 기준 노인인구 비중이 17.8%를 차지하는 서귀포시는 2022년 노인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2026년보다 4년 빠른 것으로, 고령층 돌봄이 주민 다수의 보편적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어르신들 만수무강 하세요"
홀몸 노인 200여명에 생일상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가 14년간 지속적인 공경문화 확산, 효(孝)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회장 현금영)는 17일 서귀포농협 하나로마트 웨딩홀에서 지역내 12개 동지역에 홀로 사는 어르신 200명을 초청해 합동 생신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외로운 어르신들을 모시고 생신잔치를 통해 신(新) 새마을운동의 하나인 공경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는 정성껏 생일상을 마련하고 흥겨운 민요공연을 어르신들에게 선보였다.

현금영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장은 "앞으로도 부녀회원들이 팔과 머리가 돼 어르신들을 정성껏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는 효의 가치를 되새기고 어르신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14년간 어르신 합동 생신잔치를 이어오고 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자전거 타고 기차처럼 줄줄이 17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서 한 어린이집 아이들이 기차처럼 줄줄이 이어진 슬로우바이크를 타고 마을 안길을 달리고 있다.

맛있는 감귤 직접 따고 맛도 보고...

내달 8~23일 농업생태원 체험

"맛있는 감귤 따고 맛보러 오세요!"
감귤 따기 체험행사가 제주감귤박람회 맞춰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귀포 농업기술센터는 제주여행의 아름다

운 추억거리인 노란 감귤을 직접 따서 먹어볼 수 있는 체험행사가 11월 8일부터 23일까지 제주농업생태원 감귤원에서 운영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감귤따기 체험 신청은 지난 14일부터 이뤄지고 있다. 10명 이상 단체

는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 등을 통해 사전 제출해야 하며, 개인은 체험장 입구에서 현장 신청하면 된다.

체험료는 1인당 3000원으로 직접 수확한 감귤 1kg을 가져갈 수 있으며, 시식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감귤 수확용 가위, 봉지 등은 기술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문의 760-7811~3. 조상윤기자

"언론재단,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낮춰야"

최경환 의원, 국감서 주장
"지역지 침체 속 부담 가중"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폐지하거나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국감장에서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경환(대안신당·광주 북구을) 의원은 17일 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재단이 언론사로부터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징수하면서 지역 언론사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역 언론사의 경우 언론 외부환경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수익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수수료 10%를 언론재단에 지불하고, 또 부가세 10%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

단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언론재단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로 2018년에 702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또 최근 4년(2015~2018년)동안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수입은 서울 소재 전국지에서 449억원, 지역소재 신문사에서 318억원, 지상파나 케이블방송 등 방송매체 671억원 등 총 2394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같은 기간 언론재단의 신문사에 대한 지원규모는 전국지는 246억원으로 55%였으나 지역지 104억원으로 33%에 불과해 같은 신문대상 지원규모가 22%포인트 적어 차별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최 의원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고 이를 폐지하거나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면서 "정부와 언론재단은 여론을 수렴해 수수료율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아시아나, 20년 넘는 노후 비행기 22.9%"

대한항공 10.5·이스타 8.6%

아시아나항공 보유 항공기의 20% 가량은 20년 이상 된 노후 항공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은 17일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시아나항공 보유 항공기 87대 중 20대(22.9%)가 20년 이상 된 노후 항공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보유한 항공기 170대 중 18대(10.5%), 이스타항공 기 23대 중 2대(8.6%)도 20년 이상 된 노후 항공기다.

제주항공(45대), 진에어(26대), 에어부산(26대), 티웨이항공(26대) 등 4개 항공사에는 20년이 넘는 노후 항공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시아나 항공기 중 비행기 나이(이하 기령)가 가장 오래된 여객기는 1993년 11월식 B767-300로 현재도 운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1997년 1월식 A330-300 여객기가 여전히 운항 중이며, 이스타항공은 1998년 7월식 B737-800 기종이 현역으로 활동 중이다.

20대 이상 항공기를 보유한 국적 항공사의 항공기 평균 기령으로는 에어부산 12.9년, 진에어 12.3년, 아시아나항공 11.9년, 이스타항공 11.4년, 제주항공 11.2년, 티웨이항공 10.0, 대한항공 9.7년 순이다.

박 의원은 "20년을 넘긴 항공기에서 정비요인에 의한 지연, 결항 등 비정상운항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만큼 각별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회=부미현기자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
25일 한림항 수산물축제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국제상당센터와 공동으로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세무상담실은 국세 및 지방세 분야 원스톱 상담 서비스, 알면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세무상담실은 올해 4번째 운영으로 '제4회 한수위 FPC 수산물대축제' 행사장 내에 전시(홍보)부스를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이며, 도민이면 누구나 국세·지방세 전문가와 1:1 무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전액무료 매월최대 400,000 지급
순서: 학원방문 상담 → 고용센터

내선전기 실무자 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과정

대 상 — 모집 조기마감될수있음
실업자 / 구직자 / 매출 1억5천 미만 사업자

교육기간
12월 개강예정 - 7개월 과정 - 개강일 변경 연장될 수 있음

교육시간
09:00~16:00, 1일 6시간 (주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기능사, 배관배선공사, 약전, 동력설비, 소방설비등

※ **필요서류** : 내일배움카드
(카드신청후 수령까지 6주이상 기간 소요됩니다.)

취업 7월 23일 종료과정 21명중 17명 취업
미취업자 취업 협의중

(주)제원직업전문학교
Tel. 749-3434 jejujewon.com

본과정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진행합니다.

제원직업전문학교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시외버스터미널 오피스텔 2층 국제보청기(국제기계2층)
한라체육관 일대수영장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전세 렌터카

2018. 12. 17. 제23회 소비자의날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 평가 대상 수상

4년동안 타던 차를 반납하면
전세보증금처럼 새차 발매 년 금액을 100% 돌려 받는 새로운 렌터카 서비스
당신의 자산과 가치를 지켜주는 카데크의 시작 전세렌터카로 같이하세요!

차고지증명제가 필요없습니다
똑같은 자동차 타는 방식으로 자산을 지키자!!

개인, 법인 사업자 경비 처리됨

매월 관리비와 기름값으로 풀옵션 차량을 탈 수 있다.
주행거리 제한 없는 상품
우리가족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다. 고객의 신용상태 상관없이 이용가능
무로정비서비스는 S정비업체 사고처리는 S화재
4년마다 원하는 신모델 차량을 순환으로 탈 수 있다.
4년 뒤 보증금 100% 환불

이전 자동차는 소유가 아니라
편리하고 경제적인 사용의 개념으로 보셔야 할때.

내가 원하는 국내 수입차
전차종 가능...

세금 부담
정비 부담
보험 부담
주행거리 제한

S보험사
장비 보험
S정비업체
자금보증

국세회계, 연세회계사 | 원카
WONCAR CTS매니저 **박종욱**
010-9104-4742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와이덱스 보청기
4화북
광양
사거리

제주시 동광로 4, 삼육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